제 1 강　　철학의 언어, 언어의 철학

◆ 2교시　언어를 보는 다양한 관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 그 중간의 어딘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인문학에서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엄밀히 말하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애매하고 인간과학, 혹은 인문과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20세기가 되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언어학도 20세기에 등장했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물리학인 것이고 아니면 철학인 것이고.

조금 이따 언어학과 언어철학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지만 결국 이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떠한 중간 영역이라고 하는 것,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라고 말했죠? 이것은 소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상도 아니고, 그 중간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 틀이라고 하는데.

실제 물건이 아닌 그것을 담는 틀이자 거푸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상적인 영역이 인문과학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학 혹은 인문과학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소쉬르를 언어학의 창시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니피에라고 하는 영역은 그냥 '관념이다'고 말했다고 했지요? 이것은 소쉬르적이지 못한 발상이에요. 시니피에를 그냥 관념이라고 말해 버리면 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옐름슬레우에 의하면 그것은 관념 자체가 아니라 '관념의 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좀 전에 소리와 관념 사이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소리 자체가 아니라 소리의 틀이라고 했던 것처럼, 관념도 관념 자체가 아니라 관념의 틀, 다시 말하면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이 '문법'이에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고 텍스트를 만들고. 이것은 의미를 담는 틀이라는 것이죠. 그 틀, 그게 옐름슬레우는 '문형론'-물론 한국어로 번역된 용어이긴 하지만-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것이 아까 말했던 시니피앙과 함께 언어학의 대상이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그 당시에는 언어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독립성, 그래서 소리를 배제해요. 그리고 의미도 배제해요. 이게 언어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시니피에의 개념 : 지시체와 관념 사이

그래서 의미를 배제하고 얘기하는 것이 언어학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어요. 의미는 철학의 분야로 넘겨둔 것이고. 그래서 촘스키도 마찬가지로 초기이론에서는 문법을 다루지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여러 다양한 이론도 나오고, 촘스키 이론도 워낙 변화무쌍해서 어떤 것이 촘스키의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초기 이론과 후기 이론이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와요.

심층문법이니 표층문법이니 하면서 이렇게 뒤집게 되는데 그 때 반기를 든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원래 촘스키의 초기 이론이 맞다고 하고, 촘스키 본인은 아니다 내가 그 때 잘못 생각한 것이라 하면서 그 안에서 논쟁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논쟁의 발발은 의미에 관계가 된 것이었거든요. 의미 부분을 요새는 언어학에서 다루기도 해요. 초반에는 언어학에서 의미를 배제한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의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새는 의미를 다루는 것이 언어학의 주류가 되다시피 하면서 언어 철학하고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철학자인지 언어학자인지 구별이 잘 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내재적인 구조, 그것을 실제 소리가 아닌 그리고 그 소리가 담아낸 생각, 사고가 아닌 그 가운데 있는 어떤 영역, 그것을 내재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대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소리와 관계된 분야는 시니피앙이라 해서 초기 언어학은 이것을 연구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그 분야를 잘 안 해요. 왜냐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개척분야가 의미론 쪽의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쪽으로 달려들지 소리에 관한 연구, 음운론 연구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언어를 가지고 무언가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시한다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가방이라고 한다면, 가방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것이 시니피앙이 아니에요. 시니피앙이라고 한 것은 발음에 관계된 이야기고.

만일 '가방'이라는 어떤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을 시니피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을 지시를 하잖아요. 이 대상을 어떤 하나의 관념,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방' 자체는 사고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실제 사물이 아닌 언어의 영역인 거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지시체, 다시 말하면 '가방'이라는 말로 지시하는 실제 사물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것과 관념하고 같은가. 이것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의미론을 다루는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 촘스키의 재미난 아이러니

아까 촘스키 문법에서 중요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 의미의 영역, 의미의 위치였는데. 심층이라고 하는 것과 표층이라는 말로 해서, 심층, 이미 그 안에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 단계의 변형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변형문법이라고 옛날에는 많이 불렀던 거죠.변형과정을 거쳐서 표층,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단계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촘스키가 비판을 들었던 것 중의 한 부분은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이것도 충분히 하나의 연구 분야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촘스키라는 사람은 언어학자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정치적 투사로서의 이미지가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지식인 중 하나잖아요? 반미주의자이죠, 아나키스트이고.

그런데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아나키스트여서 어떠한 획일주의적인 것을 굉장히 거부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데카르트적 언어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를 믿고, 그래서 심층 구조라는 것이 나온 거죠. 심층 구조에서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편적인 사고를 믿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데카르트주의, 데카르트주의 언어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데카르트나 좀 더 위로 올라가면 플라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군주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칼 포퍼Karl Raimund Popper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저서에서 플라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보편타당하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Universal하다는 말, 우리가 일반문법에 universal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Universal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행가서 외국 나가면 맥도날드는 어딜 가도 다 있어요. 코카콜라도 다 있고, 맛도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저 커다란 노란 m자만 보아도 저기에 가면 무엇을 먹을 것이라는 게 바로 나와요. 이렇게 Universal한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는 강력한 자본의 힘이 있잖아요?

아까 언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다 다른 언어를 쓰잖아요. 한국사람, 프랑스 사람 다 다른데. 데카르트식 언어학의 본질은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인간은 결국 하나다, 보편타당한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왜냐하면 데카르트식 언어학이 프랑스어로 포르 루와얄Port-Royal이라고 하는 일반 이성문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데카르트식의 보편타당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쓰고 저 사람들은 저런 말을 써서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똑같다고, 언어는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심층으로 들어가면 전부 하나다, Universal하다는 얘기. 이 Universal하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햄버거예요.

80년대 이전까지의 촘스키 이론에 사용된 언어들은 전부다 영어에요. 이 영어의 구조, 아주 기본적인 영어의 구조가 심층 문법이 되는, 이것이 변형을 통해 한국어도 되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발상이었어요.

재미있죠? 촘스키의 정치관은 굉장히 반대에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언어관을 보면 제국주의적 요소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 상관관계를 연구해 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 언어의 내적 문제 : 지시체와 의미 문제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는 다른 언어로도 이태리어로도 연구하면서, 특히 피사 국제회의 이후로 다른 언어로도 영역이 넓어지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촘스키 이론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서 근본적인 변화가 방금 말씀드렸던 의미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심층의 문제냐, 나중에는 이것이 큰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미리 정해져있었던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이 의미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대립을 하는 것이죠.

'아니다, 미리부터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표면상의 말로서 나가는 것이다'와 '이것 자체가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두 가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구별을 해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지시체라는 말, 지시대상. 그리고 실제 세계 의미하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런 논쟁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든다면, 물질적 세계가 있잖아요? 이 책상 밑에 있는 까만색에 손잡이가 달리고 책을 넣을 수 있는 이러한 지시체가 있는 거지요? 그걸 보면서 '가방'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가방'안에 담을 수 있는 의미. 이것이 관념, 의미, 뜻이라고 말 할 수 있죠? 이것과 아까 얘기한 지시대상과는 같을 수가 없지요. 만일 이게 똑같다면 언어라고 하는 것, 언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어의 모호성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언어의 모호성이라는 것은 다의성이라든가 하는 것들로 인하여, 아까 틀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릴처럼 칸칸의 모양을 가진 하나의 틀이 있다면 이 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의 틀 자체를 한꺼번에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영어로 초크라고 하죠? 초크라는 말은 어디서 쓰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해요. 만약 자동차를 운전하다 초크 얘기를 하면 그것은 분필이 아니에요. 그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자동차 안에 스파크를 만드는. 뭔지 아시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어느 상황,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단어는 다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이러한 의미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두세 가지이지만, 나중에는 네다섯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소쉬르가 얘기한 사전 창고가 아니라 항상 변화무쌍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실증적인 방법으로는 언어학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어떠한 가능성, 틀로 담을 수 있는 것은 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통해 뽑아내는 것이 의미라고 할 수 있고 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언어 구조의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아까 지우기 전에 보았던 그 구도에서 보시자면, 우리가 시니피앙을 만드는 것은, 구조-틀을 만드는 것은 실제 음향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만들겠죠? 그렇잖아요? 제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요. 이것은 acoustic한 것이에요. 음향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구조 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나오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완전 acoustic한 음향하고, 여기서 시니피앙이라고 불렀던 것 혹은 트루베츠코이(Nikolai Sergeevich Trubetskoi)가 음운론이라고 불렀던 그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음성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과거의 음성학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쉬르 이후로 이런 구분이 나오기 시작했고, 다시 말하면 acoustic과 phonetic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니피앙 말고 시니피에의 쪽에서 얘기하자면, 물리적인 현실이 있어요.

지시 대상이,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조화시키는 것이잖아요? 언어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시킨다는 말은 곧 구조화시킨다는 말인데, 이것을 구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담아내는 것이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는, 어쿠스틱도 아니고 실제 세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음성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다시 우리가 그려보자면 이런 거죠.

(판서 그림)

이것을 실제 세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음향 세계가 있어요. 성대가 있으니 소리가 나가게 되지요. 이것은 실제세계이자 물리적인 세계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조적인 틀을 통해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를 통해서 실제세계를 빠져나가게 한단 얘기예요.

이 빠져나온 것들이 다시 실제세계와 최대한 근접하게 가야하겠지요? 가기는 가지만 결코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음성과 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음성과 관념은 결코 음향과 실제 지시 대상물과는 같을 수 없어요. 거기에 가까워지려고 하겠지만, 서로 절대로 같을 수는 없는거죠. 이것을 뽑아내는 것이 구조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그림일 뿐이에요. 틀을 빠져나오지만 관념이 실제 세계와 근접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구조-틀도 막 개조를 한단 얘기에요. 내가 무언가를 지칭하려하는데 단어가 없다면, 그 단어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서 이 구조-틀도 막 변한단 얘기에요.

▲ 언어의 내적 문제 : 시학의 문제

그래서 실제세계를 가장 많이, 가장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까워지려고 해요. 그렇지만 결코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어를 쓰면서도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아, 이게 아닌데 하면서 더 좋은 표현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시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시니피앙에 관계된 쪽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일단 운율이 맞는다든가 이러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세기에 프랑스의 누보 로망nouveau roman이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음성적인 반복 말고 관념적인 반복,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음성적인 반복이라면 3, 4, 3, 4의 음수율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뒷자리의 소리를 맞추는 각운과 같은 음위율을 만든다든가 하는 식이 아니고, 관념적인 차원에서 조화를 맞추는 것이에요.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것과 이것의 대립구도가 있다면 조금 지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나서 또 다른 것들 사이의 대립구도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관념적인 조화를 맞추면서 소설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인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음운론적인 시학이 아니라 시니피에적인 시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저도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할까 하면서 자꾸 고민하는 것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에 최대한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100%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그것에 근접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죠. 언어의 1차적인 목적이 그것인데, 지시물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2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좀 전에 얘기했던 시학적인 문제인데요.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반복한다든가 하는 식의.

아니면 경제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똑같은 얘기는 장황하게 하기보다 간결하게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간결하게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일반적으로 간결하게 하다보면 정보가 많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을 길게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웬만하면 짧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죠.

이것도 일종의 시학적인 원리예요.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실제 관념, 실제 지시대상을 향하여 가는 관념의 차원에서 보자면 길게 얘기하든 짧게 얘기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웬만하면 짧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조를 어떻게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인 것이죠. 관념을 어떻게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시학적이다 라는 말은 언어가 지시물을 향해가는 고민이 아니라 언어 자체에 대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언어를 더 조화롭게, 더 간결하게, 보통 시가 짧잖아요? 아니면 개념상으로도 어떻게 하면 더 간결하게 얘길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어찌 보면 언어의 내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20세기에 새로 발견된 하나의 인간 과학, 인문 과학으로서의 전제조건이자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인문과학으로서의 언어학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 부르디외의 언어학 비판

그런데 아까 소쉬르의 경우, 처음에 랑그와 랑가주 얘기했었죠? 그런데 소쉬르가 랑가주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을 정제하여 랑그라고 하는 것만을 언어학의 대상으로 삼자고 얘기했다고 했었잖아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그런데 오귀스트 콩트가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학이라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요. 실제 역사화 된, 사회화 된 그 대상. 그러니까 랑그도 그러한 대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라고 아시죠? 프랑스 사회학자이죠? 최근에 2002년엔가 죽었어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하나였는데.

그 사람이 언어학을 비판하는 근거가 이것이에요. 랑그를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사회학의 하류분야가 아니냐고 비판했죠. 그리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사회학인 것이죠. 학문의 대상을 수단을 가지고 얘기를 하나요? 제가 목적인(因)이라는 말을 쓰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이라는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다면, 이 물을 분해하여 H_2O라고 하는 기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화학이라는 학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물이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해서, 물이란 목마를 때 마시는 것이다. 하는 정의는 이것이 과학적인 설명은 아닌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4원인설이라는 게 있죠? 형상인, 질료인,.. 그 중에서 목적인.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학자가 던질 질문은 아니에요. '어디다 쓸 것인가'라는 것은 학문을 구성할 수 있는 질문이 될 순 없는 것이죠.

물을 연구하는 데 있어 물을 어디다 쓰느냐가 될 수 없듯이, 언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어디다 쓰느냐는 질문은 질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학자가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라고 말하는 이상,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말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위해서' 있다는 말이고 커뮤니케이션은 사회학적인 문제이죠? 사회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자아와 타자의 관계잖아요. 같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나갈 때 이것이 기본적인 거죠.

여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저와 같은 부분이 어딘지를 알고 또 다른 부분이 어딘지 알아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일단 같은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만일 완전히 같다면 소통할 필요가 없죠. 내가 여러 명 있는 셈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같은 부분이 있는 동시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알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견해가 다르다든가. 그래서 이것들을 조정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같으면 커뮤니케이션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 다르면 커뮤니케이션 필요 없어요. 같음과 다름, 이것이 사회학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언어학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은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 언어의 외적 문제 : 소쉬르의 랑그와 랑가주

랑그라고 하는 것, 개인 언어라고 하는 것, 혹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 랑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중국어 같은 경우, 중국어는 랑그의 범주이죠? 중국어라는 랑그는 지방언어가 너무나 달라서 말이 잘 안통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중국어라고 하지요.

반면에 스칸디나비아에 가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나라 말을 해도, 서로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방언 수준밖에 안돼요. 그런데도 그것은 다 따로따로인 랑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국어는? 못 알아듣는다 해도 하나의 랑그라고 얘기하죠.

랑그가 과연 언어학적인 개념일까요? 이것은 정치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 언어를 접근하는 것은 사회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피에르 부르디외의 지적이고.

다시 말해 랑그를 대상으로 삼는 순간부터 언어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의 내재적인 틀, 인간이 세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틀에서 하나의 사회적인 필터를 덧 쓴 상태인 것이죠. 이게 랑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은가 다른가를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같은 무언가를 찾아야죠.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불어를 쓰거나 영어를 쓰는 게 아니죠. 한국어를 쓰고 있죠. 만일 다른 곳에서 프랑스 사람을 만난다면 불어를 쓰겠죠.

그런데 이것이 잘 조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일종의 자폐증 환자들이 이것이 조정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인데. 자폐증환자가 실어증 환자는 아니잖아요. 자폐증과 실어증은 다르죠. 그런데 둘 다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다르죠?

실어증 환자는 논리가 망가진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증명을 이들을 가지고 시도하는 언어학자들도 있어요. 그냥 사변적인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실어증 환자를 만나면서 분석을 해요. 마치 이런 것이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의 원리를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동차의 원리를 몰라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고장 났을 때 알아요. 고장 나 보면 아 이것은 이런 기능하는 것이었구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일부러 고장 내 보기도 하죠. 집에서 그런 경험 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작동하나 안하나 보려면 뭐 하나 꺼보고, 컴퓨터에서도 프로그래머가 아닌 이상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클릭해 보는 거죠. 체크표시를 해봤다가 해제했다가 하면서. 한마디로 고장을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 이게 그 기능이구나'를 알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가지고 그렇게 실험을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현재 단계에서는 없어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대신에 고장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프로이트가 그런 거예요.

프로이트는 치료해 줄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상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장 난 경우를 들여다보면서 다른 점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해요.

이건 여담이지만, 그게 많이 어려워지는 모양이에요. 실어증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어려움을 겪겠죠? 뭐 어려움 겪어도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거니까. 그런데 실어증 환자들이 갑자기 줄어든 시기가 언젠지 아세요? 안전벨트 의무화 되면서.

우리 주제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머리를 부딪쳐서 오는 충격으로 실어증이 많이 왔나봐요. 여하튼 안전벨트를 의무화 한 이후로 많이 줄었대요. 안전벨트는 꼭 매어야 해요. 어쨌든 이건 여담이었고.

그런 식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하면,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게 확드러나고. 그리고 자폐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기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감기가 병명은 아니죠? 감기는 증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감기라는 병은 없어요.

자폐증이 일종의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폐증은 어떠한 증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것이 왜 발병하는지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의 병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최근 신경정신의학계의 이야기이에요.

어쨌든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르다는 게 드러나요. 다시 말해 나의 사회학적인 능력과 논리학적인 능력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죠. 이 두 가지 모두가 정상적으로 작용했을 때 제대로 랑그를 구사한다는 얘기에요.

그 중에서 제가 사회학적인 능력이 고장 났다면 말이죠. 논리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망가지진 않아요. 하나씩 망가지지. 하나가 망가졌을 때, 만약 사회학적 능력이 망가졌을 때면 자, 타의 구별이 빨리빨리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라면 저는 지금처럼 말을 못하겠죠. 아주 친한 친구들과 술 한 잔 하며 할 수 있는 얘기를 이 자리에 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말이 왜 저러지? 하는 느낌은 말하는 사람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 능력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노출증 환자와도 같아 보여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의 윤리구조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가 망가져서 저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윤리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 능력이 망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있을 때나 할 일을 밖에 나와서도 하는 것이죠. 윤리가 망가진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연구를 통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회학적 능력이라는 것이 망가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언어의 이상한 현상. 반면에 논리적인 측면이 망가졌을 때에는 뇌의 구체적인 어느 부분이 망가졌기 때문에 기인했는지 많이 밝혀졌어요.

사회학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했어요. 이건 아직 미스터리에요. 신경학적으로 뇌 안에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저런 문제가 나오는 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실어증은 뇌의 어느 부분이 망가졌는지 딱 집어 낼 수 있지만 자폐증은 어디가 망가졌는지 알 수 없어요. 아직 거기까진 연구가 안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안 되어 있지만, 이 둘이 다르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임상학적인 방법으로 구별을 했다는 것이죠. 논리적인 부분이 망가졌을 때는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는 있어요. 사회적인 측면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신에 말이 자꾸 꼬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말을 이상하게 한다'는 문제에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왜 말을 이상하게 하는지 다양한 이유가 있단 소리에요. 랑그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모여서 정상적인 언어 활동을 했을 때의 이야기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쉬르가 얘기한 랑그라는 말 안에는 언어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인 측면도 같이 포개져 있다는 얘기에요.

그 이외에도 아까 '말을 이상하게 한다'는 것이 윤리적인 측면이 망가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임상학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사회학적 측면이 손상된 것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요. 하여간 '말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논리가 망가진 것인지, 사회적인 장치가 망가진 것인지 윤리적인 장치가 망가진 것인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본 것은 언어가 사회와 포개진 것을 본 것이고 언어와 윤리와 포개졌을 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실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숨기는 것이지. 그게 말하자면 언어의 윤리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산다면, 말은 오히려 정확하고 짧고 간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것을 상대방 때문이라고 본다면 사회학적인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컨트롤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컨트롤 하는 데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새벽에 혼자 아무도 없는 차도에서도 신호등을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누가 있다고? 이건 그냥 나에 대한 만족이에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언어에도 이러한 것들이 다 씌워져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하는 말들에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인 측면이 씌워져 있잖아요? 동시에 또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윤리적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인 측면이 씌워져있어요.

예를 들어 때로는 도발적이고 싶고, 때로는 뭐라고 할까요?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그게 윤리적인 측면이라는 것이죠.

▲ 언어의 외적 문제 : Logos와 Dike

이렇게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랑그, 랑가주에서 말하는 사회학적인 측면하고, 거기 보시면 제가 로고스와 디케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그 이야기에요.

로고스logos는 말 그대로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디케Dike라는 것은 그리스어에서 가치라는 뜻인데,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었을 때, 바로 '말의 가치라고 하는 것', '가치 있는 말'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두 가지가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고스화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로고스가 논리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언어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관념인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게 윤리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대 방향이에요. 말을 얼마나 가치 있게 하느냐. 반면에 지금 얘기한 것은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것은 윤리학인 것이죠. 그래서 왜 영어에서도 -logy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logy가 어원이 logos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대상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앞에 있는 말은 대상이에요. bio를 logy화 한다는 것이 biology이고, 또 socio를 logy화 한다는 것이 sociology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axio-라는 말은 가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또 logy화 하는 것은 axiology, 가치학이에요. 이런 식이죠.

반면에, 거꾸로 본다면, 말을 하는 데 있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 이게 다양한 측면이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아까 문법이야기 할 때 그랬잖아요. 초기의 문법 연구는 규범적인 것이었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 언어학과 언어 철학

언어학의 대상은 그게 아니에요. 언어학의 대상은, 인간이 하는 언어를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보는 것이지 '이것에 맞다, 틀렸다'라고 얘길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과거의 문법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표현이 맞다, 틀리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넓게 보면, 철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논리학이라는 것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논리학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참, 거짓을 따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어학에서 다루는 언어와 논리학에서 다루는 언어의 근본적인 차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참이다, 혹은 거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다시 말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말해야 말을 가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한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과 과학의 차이점이 그거에요. 가치 있는 삶을 찾는 것, 가치 있는 언어를 찾는 것, 가치 있는 사회를 찾는 것.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은 그렇지 않아요. 가치를 걱정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학자는. 과학자는 있는 것을 그대로 쪼개보고 들춰보는 것이죠. 무엇이 있나. 이것이 과학이죠.

다시 말해 언어학, 그러니까 언어과학, 언어학과 언어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 차이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언어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언어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가는 과정에서 보면, 둘이서 길이 꼬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언어생활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언어를 연구해야 하잖아요? 연구하는 과정은 마찬가지인데 궁극적인 차이점이라는 것은, 가치에 대한 고민. 그런데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대한 고민이 없죠. 그런 것은 하면 안 되죠. 있는 것을 그대로 밝혀내는 것이 언어학의 임무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러한 비유가 있죠? 천문학자가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커다란 혹성을 발견했어요. 이 상태로 간다면 한 달 후 지구와 충돌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자 입장에선 그냥 말하면 되요. 발견했으니까 말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의 인간은 과학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한 인간 안에, 이 사람은 과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모두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인격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이건 과학적인 고민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볼 수 가 있어요. 어떤 가치 있는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언어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언어 철학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언어 철학이라는 말 안에서 다양한 중의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크게 언어를 철학적으로 다루는 것, 이것이 언어철학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를 통해서 보는 것. 이것도 언어철학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석 철학 같은 경우가 있죠. 언어 철학 하면 분석 철학이 가장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먼저 떠오르는데, 분석 철학자들의 근본적인 고민은 언어 자체가 아니에요. 초창기의 프레게도 그랬고, 나중에 비트겐슈타인도 그러했고.

모든 철학적인 문제는 언어의 문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어가 비비 꼬여있으니까, 언어 문제가 해결되면 철학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어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길래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언어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다의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에서,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언어 철학이라고 한다면, 전자로 얘기했던 그것이 언어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어학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과학적인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가치의 대상으로 보느냐 거기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가는 여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궁극적인 차이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